

## [그말씀 설교 9]

###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본문] 시편 37:23-29 / 홍정길 목사 / 페이지 수: 5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시37:23).

여러분, 내가 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나 된 것에 있어서,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가장 첫 번째 환경적 요인은 부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를 만나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입니다. 그런가하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는 평생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쉽게 유지하며 삽니다. 또 신중한 부모를 만나면 한걸음 한걸음을 돌다리를 두드리며 걸듯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나의 기호도 결정되고 내 지능도, 재능도 모두 결정됩니다. 이것이 나를 만드는 한 요인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생의 고배 때에 조용히 무릎 꿇고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자녀가 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의 법을 기뻐하는 삶은 살기 마련입니다.

환경적인 요소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가, 이것이 나를 만드는 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도난 회사에 입사하면 실직자가 됩니다. 그러나 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회사에 평생 몸담아 있다면 그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 지위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책임 맡은 부서에서 동료직원이 실수를 하였다면 내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고통스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은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 나라에 전기가 들어오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 그러나 지금 나가 보면 대우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인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또 영향을 입을 것입니다. 거대한 미국이 벌써 힘을 잃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고 일본의 경제도 지금 곤두박질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은 미국의 문제만 아닙니다. 일본의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요인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나의 인생이 만들어져갈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낙선하고 낙선해도 또 출마합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를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는 것을 봅니다.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가하면 열심히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 인생이 나아갑니다.

제가 어느 형제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더니, 그가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요약해보면 "목사님, 나를 어느 정도로 키워주시겠습니까?"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하기 나름"이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담당할, 이 시대의 예언자와 같은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이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멋진 건물들과 기도의 용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본인이 얼마만큼 하느냐 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자랄 것입니다. 멋진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입니다. 행동이 문제입니다. 주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입니다. 이것이 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멋있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것이 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만듭니다. 또 자신의 노력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내 인생이 돌맹이처럼 던져진 존재나 나무뿌리처럼 그냥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속해있던 단체에서 십여년 동안 일하면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로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십년을 지내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깊이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복된 사역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서 제일 처음 읽었던 전도지의 첫 구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은 신구약 66권을 가장 간략하게 줄인 하나님에 관한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비례합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잘날 때가 아닙니다. 똑똑할 때가 아닙니다. 온전할 때가 아닙니다. 아름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첫 번째 말씀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계획'입니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생애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선택해 온 인생입니다. 직장도 선택했고, 배우자도 선택했고, 내 집도 선택했습니다. 친구도 선택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서 나의 길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주께서 내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지난날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한 곳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 내 인생을 붙잡은 의로운 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이 사실은 내게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을 갖지 않고 내 노력만큼 되어진다면, 내가 잘할 때에는 한없이 기뻐하고 교만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할 때에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생애를 향해서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또 내년에는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십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까, 소망을 갖고 기다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전체를 통하여 나를 향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생애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삶을 계속 붙잡아 인도해줍니다. 24-25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줍니다. 어린아이가 눈길에서 자꾸 넘어지자 옆에 있는 아버지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미끄러지자 아버지가 그 큼직한 손으로 아이의 손을 덥석 붙잡아주었습니다. 조금 가다 또 미끄러운 곳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힘차게 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줍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다윗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은 죄와 똑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면 그는 교회에서 축출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용서받았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윗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외로운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일생 동안 걸어갈 때에 우리들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십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손해인 것 같고 바보같이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는 25절에서 말씀해주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의로운 것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자손을 위한 든든한 보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후손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이 자녀들의 삶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맛살 찌푸리는 것과 마음 씩씩이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마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삶의 영향을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다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앞으로 미국은 회복불가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의 글을 보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요점 지을 수 있는데, 국가 관리비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주가 갖는 도로 점유율은 일본의 거의 열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평균 건물 평수가 일본의 다섯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의 수준에서 부자가 아닌 중하류 정도의 소시민들이 사는 곳을 타운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타운 하우스가 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화장실에 네 개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집을 넓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관리할 수입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포들이 수입이 좋을 때 그 수입에 맞추어서 큰 집을 사놓습니다. 그 후에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고통 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을 빼앗기는 가정들이 미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량을 보면 교량을 고칠 재정이 없어서 "이 교량은 위험함"하고 표지판만 하나 세워놨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주택도 20평 이상에서 사는 것은 매우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좋다고 50평 60평 90평 집에서 살다가 떠나면 우리 후손들은 그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삶의 영향을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남의 예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해서는 안 됩니다. 장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이 잘 되는 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후손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는 유산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최선으로 내 자

녀들을 붙잡아주신다면 내 자녀들의 앞길은 험통하게 될 것입니다.

### 내 생애를 위한 놀라운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자녀가 둘인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다가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축복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평생의 인생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내 노력,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내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계획을 복스럽게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심과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자세함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당했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걱정하신 그 걸음을 걸을 때에 내 인생에 확신이 더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정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씨를 느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슥3:17).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가 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저가 넘어져도 아주 얽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심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그말씀